

말씀의 사람

성경말씀: 렘20:9

지난주: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다(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요한 등). 어떤 이들은 의로 인해, 어떤 이들은 성화로 인해 거쳤다. 이 밤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고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 9절 설명: **뼈 속에 갇힌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씀의 사람'**

계시 종교의 특징: 말씀

종교: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

저등 종교: 계시 없이 경험과 술수로 사람의 육적 필요를 채우려 함(바알, 아스다룻, 그리스, 로마, 바빌론, 이집트, 샤머니즘, 은사주의).

고등 종교: 계시가 있다(불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등). 즉 말씀이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도덕적 성품)이며 동시에 말을 해서 상호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은 말을 하신다. 인간도 말을 한다."**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호칭이 말씀이다(요1:1).

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창1:3; 계22:20).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마4:4).

그러므로 명백하게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심(시12:6-7).

말씀 변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주심(계22:18-19).

마귀는 창세기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기 시작함: 말의 전쟁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히라라. 너희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보존해 주실 수 있다.", "보존해 주실 수 없다."의 싸움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히1:1-2).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아들의 말을 확증해 주심(마17:5).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여야 한다. 말로 구원, 말로 성화, 말로 위로, 말로 심판
예레미야 1장 1-10절, 첫 강해, '우리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계시 종교에서는 '대언'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임받은 사람이 '대언자'이다.

대언자에 의해 한 인간과 가정과 국가의 생상회복과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렘1:9-10).

왕상22: 아합의 멸망, 미가야와 거짓 대언자들(왕이 잘된다고 대언함), 19-23절

거짓과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 개인과 국가가 패망한다.

구약시대의 역사: 대언자들의 역사, 참 대언과 거짓 대언의 갈등

예레미야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임: 바로 이런 때에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한다.

백성이 무지하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나라를 잃는다.

마지막 때의 징조: 마24:4-5, 11, 살후2:8-12, 딤펢전4:1, 딤펢후4:3-4

지금 한국의 상황이 거의 마지막 때와 비슷하다: 도처에 거짓 대언자가 횡행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이 중요하다.

대언자

구약시대 대언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렘1:2-4).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1.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는 자에게 임한다: 기드온(삿6:11-14), 바울(롬9:1-4)

2. 하나님의 것이 훼파되고 조롱당함을 보고 분을 내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요2:13-17)

3. 앞날의 심판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 노아

4. 회개하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 침례자 요한
한 마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들의 특징: 확신에 차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사도 베드로와 열두 사도: 부활 이전에는 말을 못하고 권력 다툼을 하며 세상으로 가려던 사람이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다. 행4:10-12, 18-20, 29절

사도 바울: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함, 행26:24-29

핵심: 미쳤다는 소리를 들음, 예수쟁이야

한결 같이 그들에게는 말씀이 타오르는 불같이 그들의 뼈 속에 사무쳤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전9:16-17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나와야 교회가 바로 선다.

죽은 교회, 썩은 교회에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뛰어나와서 성경대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개척자들이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의 대언자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시대 대언자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다.

말씀이 타오르는 불 같이 뼈 속에 사무치게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말씀이 약하면 약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2.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한다(딤후2:15): 말씀이 열려야 한다. 통합적인 강해
3. 온전한 신학이 서야 한다: 하나님, 사람, 천사, 마귀, 죄, 구원, 성화, 천국, 지옥
4. 인간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단 신학, 가정 배경, 오직 성경 신학으로 돌아서야 한다.
5. 부지런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진보이다. 진보주의자 중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벧전5:5-6)
6. 온전한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7.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의 통로로 쓰신다.

1. 이러면 그의 뼈 속에 간혀 있는 말씀이 통합적으로 그에게서 은혜롭게 흘러나온다(눅4:22).
2. 자기 것이 아닌 말씀들로 먹이는 자들(종교인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다(마7:29).
3.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다(행28:30-31).
4. 이런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위로르 받는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나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복할 수 있다.